중2 역사 1 · 교과서를 읽다 생기는 질문

W21. 대운하와 수의 멸망

남북을 다시 통일한 수나라는 넓은 지역을 잇는 물길을 정비했어요. 이 물길은 오랫동안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나라는 세워진 지 37년 만인 618년에 무너졌어요. 왜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수나라 37년



이 단원의 흐름

① 물길을 잇다 · ② 곡식과 사람을 나르다	605~610년 대운하 정비와 그 쓰임
③ 공사와 전쟁의 부담	605~618년, 여러 부담이 겹침
④ 수의 멸망과 남은 것	618년과 그 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단원의 질문

① 물길을 잇다

Q01 운하는 강과 무엇이 다른가요?

> **답** **강은 자연적으로 생긴 물길이고, 운하는 배가 다니도록 사람이 땅을 파거나 기존 물길을 손질해 만든 물길이에요.**

강과 운하

구분	강	운하
어떻게 생기나	자연적으로 생김	사람이 만들거나 손질함
배가 다니려면	물의 깊이·폭 등이 맞아야 함	배가 다닐 깊이·폭 등을 마련함

운하가 하는 일



강 A와 강 B 사이의 땅에서 물길이 끊김 → **배가 다른 강으로 갈 수 없음**



강 A와 강 B 사이를 운하로 연결 → **배가 이어서 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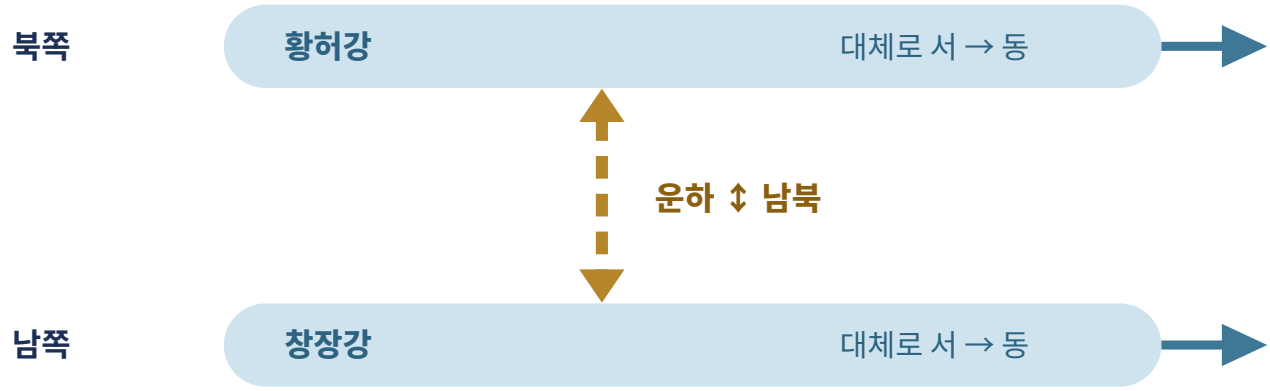
용어 **운하** 배가 다니도록 사람이 만든 물길

운하는 물을 담아 두는 연못이나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배가 다니는 길이에요. 다만 모든 강에서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하도 물의 양과 깊이를 관리해야 해요.

Q02 황허강과 창장강이 있는데, 왜 물길을 더 만들어야 했나요?

> **답** **두 큰 강은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므로, 남북의 여러 지역을 배로 이어 다니려면 물길을 연결해야 했어요.**

두 큰 강 사이를 남북으로 잇다



두 큰 강은 대체로 동서 방향의 길

운하는 그 사이를 잇는 남북 방향의 길

황허강과 창장강의 물이 모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게 바꾼 것은 아니에요.

용어 **황허강** 중국 북부를 흐르는 큰 강

용어 **창장강** 중국 중부를 흐르는 큰 강으로, 양쯔강이라고도 부름

각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갈 수 있어도, 다른 강으로 옮겨 가려면 길이 끊기는 곳이 있었어요. 수는 강과 기존 운하를 이어 더 넓은 지역으로 배가 다닐 수 있게 했어요.

Q03 수 양제가 대운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팠나요?

> **답**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던 강과 운하를 이용하고, 새 구간을 파거나 낡은 구간을 손질해 큰 물길로 연결했어요.**

여러 물길이 하나의 운하망으로

기존 강·운하 + 새로 파거나 손질한 구간 → **남북을 잇는 운하망**

용어 **운하망** 여러 운하와 물길이 서로 연결된 체계

인물 **수 문제** 수나라를 세운 첫 번째 황제

인물 **수 양제** 수 문제의 아들로,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수 문제 때 수도 대흥과 황허강을 잇는 운하를 팠어요. 그 뒤를 이은 수 양제가 605년부터 여러 구간을 크게 정비하여, 610년 무렵에는 남북의 주요 지역을 잇는 운하망을 갖추었어요. 교과서의 '수 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말은 이 큰 연결 사업을 가리켜요.

Q04 '수 양제가 건설했다'면 황제가 직접 땅을 팠다는 뜻인가요?

> **답** **아니에요. 수 양제가 공사를 명령하고 추진했으며, 실제 공사는 관리와 기술자, 동원된 많은 백성이 맡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나

황제	공사를 명령하고 추진
↓	
관리·기술자	구간·사람·물자를 관리
↓	
동원된 백성	땅을 파고 흙과 재료를 운반 — **실제로 땅을 판 사람들**

용어 **동원**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모아 쓰는 것

역사책은 큰 사업을 왕이나 황제의 이름으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혼자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일과 현장에서 일하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Q05 대운하는 어느 지역들을 이어 주었나요?

답 **뤄양을 가운데 두고, 북쪽으로는 탁군(오늘날 베이징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강도(양저우)를 지나 여항(항저우)까지 물길이 이어졌어요.**

수 대운하의 주요 연결 관계

7세기 초 · 지명은 수나라 무렵



운하망의 주요 연결 관계
강은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점선은 '이어졌다'는 뜻만 나타내요.
실제 운하가 지나간 자리는 아니에요.

작은 지명은 오늘날의 위치예요.

강·해안선은 현대 지형을 바탕으로 했어요.
당시의 물길·국경을 복원한 지도는 아니에요.

지도 읽기 ① 가운데: 뤄양 ② 북쪽 끝: 탁군(베이징 일대)
③ 남쪽 끝: 여항(항저우), 가는 길에 강도(양저우)

주의 점선은 '이어졌다'는 뜻만 나타내요. 실제 운하가 지나간 자리는 아니에요.

대운하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가는 항로가 아니라, 중국 안의 여러 강과 지역을 이어 주는 내륙의 물길이었어요. 북쪽으로 향하는 길과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 뤄양 주변의 물길을 통해 이어졌어요.

Q06 앞에서는 수의 수도가 대흥이라더니, 왜 여기서는 뤄양이 나오나요?

답 **수 양제가 대흥보다 동쪽에 있는 뤄양을 크게 정비해 또 하나의 정치 중심지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대흥과 뤄양

구분	대흥	뤄양(낙양)
위치	서쪽(오늘날 시안 부근)	동쪽
누가	수 문제가 수도로 세움	수 양제가 크게 정비함
역할	원래의 수도, 뒤에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되는 곳	동쪽의 수도(동도)·운하망의 중심

용어 **동도** 동쪽에 둔 수도

수 양제는 뤄양을 동도, 곧 동쪽의 수도로 삼았어요. 대흥과 뤄양은 같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뤄양은 남쪽과 동쪽에서 오는 물자를 모으고 여러 지역과 연락하는 데 유리했어요.

② 곡식과 사람을 나르다

Q07 남북을 이미 통일했는데, 왜 물길까지 이어야 했나요?

답 **남쪽의 곡식을 북쪽의 수도와 군대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물길을 이으면 배로 많이 옮길 수 있었어요.**

곡식을 공급할 곳과 필요한 곳

북쪽	**수도·군대**	먹을 사람이 많아 곡식이 필요
	↑ 대운하로 운반	
남쪽	**농업이 발달한 지역**	다른 지역에 보낼 곡식을 생산

용어 **물자** 생활이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과 재료

황제가 남북을 다스린다고 해도, 멀리 있는 곡식이 저절로 수도에 도착하지는 않아요. 남쪽에서는 농업이 발달해 곡식과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고, 북쪽의 정치 중심지와 군대에는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했어요. 대운하는 이 지역들을 실제로 이어 주었어요.

곡식만 이동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 여러 상품도 오갈 수 있어 남북의 경제적·문화적 교류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Q08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왜 배로 옮겼나요? 세금은 돈 아닌가요?

> **답** **당시에는 곡식이나 옷감으로 내는 세금도 있었고, 무겁고 부피가 큰 곡식을 먼 곳으로 옮기는 데 배가 유리했어요.**

당시 세금에는 곡식·옷감도 있었어요(돈만 내는 것이 아님).

곡식을 먼 곳으로 옮기는 방법

구분	사람·수레	배
한 번에 옮기기 좋은 양	비교적 적은 양	비교적 많은 양
같은 양을 옮기는 데 드는 힘	비교적 많이 듦	물길 조건이 맞으면 덜 듦
조건	사람·수레가 다닐 육로	배가 다닐 깊이·폭의 물길

세금으로 거둔 곡식 → 창고에 모음 → 배 등으로 운반 → 필요한 곳에서 사용

용어 **조운** 세금으로 거둔 곡식 등을 배로 운반하는 일

용어 **군량** 군대가 먹는 식량

곡식을 사람이 계속 짊어지거나 수레로 나르면 많은 힘과 시간이 들어요. 배가 다닐 조건이 갖추어진 물길에서는 큰 짐을 한꺼번에 옮기기 쉬웠어요. 국가는 운반한 곡식을 군량이나 관리에게 지급할 몫 등으로 썼어요. 운하를 오가는 모든 짐이 세금인 것은 아니에요.

Q09 배에 실으면 사람의 힘이 없어도 저절로 이동했나요?

> **답** 아니에요. 배를 움직이고 방향을 잡으며, 짐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의 일이 필요했어요.



① 왼쪽: 줄로 배를 끄는 사람들

② 배 위 가운데: 실은 곡식을 살피는 사람

③ 배 위 오른쪽: 노로 방향을 잡는 사람

배를 써도 사람의 일은 필요했어요.

> **주의** 수나라 무렵의 곡식 운반을 나타낸 상상도이며, 특정 배나 현장을 그대로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물길을 이용할 때 필요한 일

배가 다니게 하는 일	물자를 옮기는 일
물길의 깊이와 둑 관리	배를 끌거나 노를 저어 이동
막힌 흙이나 장애물 제거	짐을 싣고 내리고 보관

이동 방향이나 물길의 상태에 따라 노·돛·줄로 끄는 힘 등을 이용했어요. 운하의 이점은 '사람이 전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짐을 나르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Q10 수 양제가 배를 타고 놀러 가려고 대운하를 만든 건가요?

> **답** **그것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황제의 순행에도 쓰였지만, 곡식·물자 운반과 남북 통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대운하의 여러 쓰임

국가 운영	사람과 물자의 이동	황제의 이동
곡식·군사 물자 운반	상품 거래·지역 간 교류	순행과 황제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

용어 **순행** 황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

수 양제는 큰 배를 타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도 등으로 순행했어요. 이런 호화로운 행차도 물자와 노동의 부담을 늘렸어요. 하지만 황제의 행차만으로 대운하 전체의 목적과 역할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③ 공사와 전쟁의 부담

Q11 ‘대규모 토목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답 **운하를 파고 둑을 쌓거나, 만리장성을 고쳐 쌓고 도로 등을 만드는 큰 공사를 말해요.**



① 앞쪽 왼쪽과 가운데: 땅을 파는 사람들

② 앞쪽 오른쪽: 흙을 바구니에 담는 사람

③ 오른쪽 위: 바구니를 메고 흙을 나르는 사람

흙을 파고 나르는 데 사람들의 힘이 많이 들었어요. 왼쪽 위에는 잠시 쉬며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뒤쪽 물길을 따라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주의 수나라 무렵의 운하 공사를 나타낸 상상도이며, 특정 공사 현장을 그대로 복원한 그림은 아니에요.

수 양제 때의 큰 공사

대운하	만리장성	도로	뤄양의 궁궐·도시

용어 **토목공사** 땅을 파거나 흙·돌 등을 써서 도로·둑·운하 같은 시설을 만드는 공사

수 양제는 운하 외에도 만리장성을 고쳐 쌓고 도로를 만들었으며, 궁궐과 도시를 크게 짓는 사업도 벌였어요. 오늘날의 굴착기나 화물차가 없던 때여서, 땅을 파고 흙과 재료를 나르는 데 많은 사람과 가축의

힘이 필요했어요.

Q12 '부역의 부담이 컸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인가요?

> **답** **아니에요. 부역은 나라의 공사나 운반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를 가리켜요.**

백성이 부담한 것

부담	내거나 제공하는 것	예
세금	곡식·옷감 등 재물	나라에 곡식을 냄
부역	일하는 힘과 시간	공사·운반에 동원됨
군역	군대에서 복무	군사로 전쟁에 나감

용어 **부역** 나라가 백성에게 의무로 맡긴 노동

용어 **군역** 군대에서 복무하는 의무

큰 공사에 사람을 모을 때, 각자 원하는 일자리를 골라 일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나라가 의무로 일을 맡기면 백성은 집을 떠나 공사나 운반에 참여해야 했어요. 세금과 부역은 구별되는 부담이지만, 한 집안에 여러 부담이 겹칠 수도 있었어요.

Q13 공사에 다녀온 뒤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 **답** **일을 오래 하거나 농사철에 집을 비우면, 제때 농사를 짓고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농사철과 동원이 겹치면

농가의 예: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농사

봄	여름	가을
씨 뿌리기	김매기(잡초 뽑기)	거두기

봄~여름에 공사에 동원

결과

제때 씨를 뿌리고 돌볼 일손 부족 → 거둘 것이 줄어듦 → 살림이 어려워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집의 일손이 농사철에 멀리 동원되면, 남은 가족이 같은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큰 공사가 거듭되고 전쟁 준비까지 겹치면 부담을 회복할 틈도 줄어들어요. '많이 힘들었다'는 말에는 몸의 피로뿐 아니라, 먹고사는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는 뜻도 들어 있어요.

Q14 중국을 통일한 수가 왜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나요?

> **답** **수는 주변 나라에도 자신의 힘을 미치려 했고, 고구려는 독자적인 세력과 대외 관계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에요.**

수와 고구려의 입장

수	고구려
통일 뒤 주변에 영향력 확대	독자적인 세력과 대외 관계 유지
수 황제를 윗사람으로 받들라고 요구	수의 압력과 침략에 대응

용어 **독자적** 다른 나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

용어 **대외 관계** 다른 나라들과 맺는 관계

용어 **원정** 군대를 이끌고 멀리 나가 싸우는 일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던 별개의 나라였어요. 수가 중국 남북을 통일했다고 고구려까지 수의 일부가 된 것은 아니에요. 두 나라의 갈등은 수 문제 때부터 이어졌고, 수 양제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어요.

탁군에서 평양까지

612년 원정 · 육로로 나아간 큰 방향



운하망의 북쪽 연결 관계

육로 진격의 큰 방향(정밀 경로 아님)

고구려 주요 영역(국경선 아님)

운하는 탁군에서 평양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의 군대는 바닷길로도 공격했어요.

해안선은 현대 지형을 단순화했어요.

살수 표시는 강의 위치이며, 정확한 전투 지점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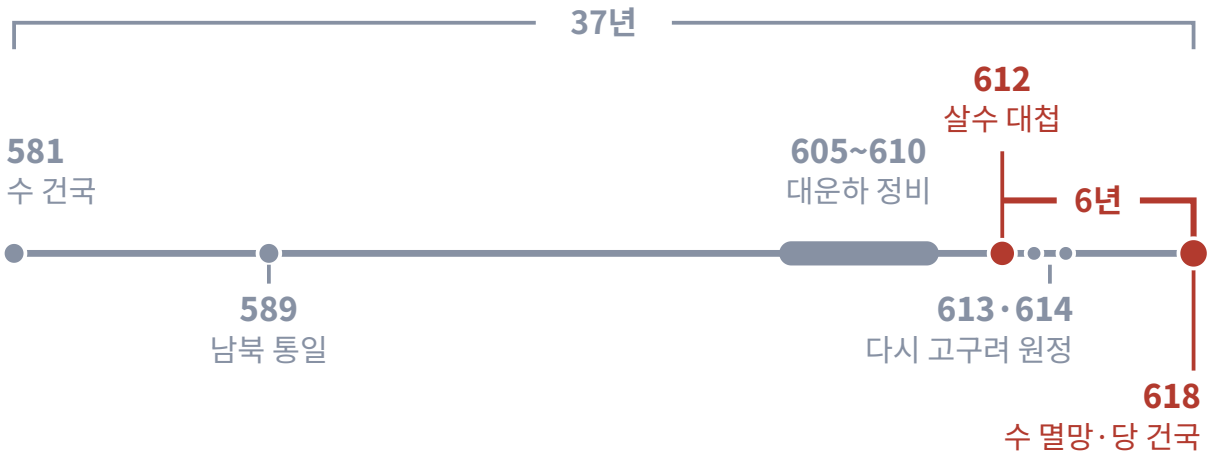
탁군은 운하망의 북쪽 끝이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은 그보다 동쪽에 있어요. 요동은 당시 고구려의 서쪽 지역으로, 육로로 평양을 향하던 수의 군대가 거쳐 간 곳이에요. 살수는 평양 북쪽의 강이에요. 화살표는 수의 군대가 육로로 나아간 큰 방향을 나타내요.

주의 색칠은 고구려 주요 영역의 대략적인 위치예요. 국경선과 정밀한 진격로를 나타낸 지도는 아니에요.

Q15 살수 대첩은 어떤 전투이고, 그때 수나라가 바로 망했나요?

> **답** **612년에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전투이며, 수가 그해 곧바로 망한 것은 아니에요.**

수의 패배와 수의 멸망은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인물 **을지문덕** 고구려의 장군

용어 **대첩** 크게 이긴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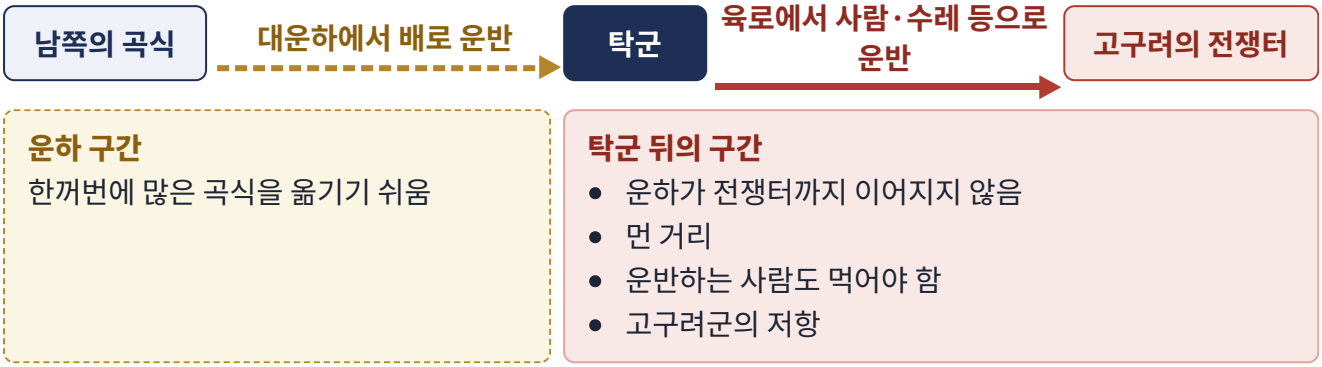
앞의 지도에 있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 쪽으로 깊이 들어왔던 수의 군대는 지치고 군량도 부족해졌어요. 을지문덕은 수의 군대가 지치고 굶주렸다는 점을 이용했어요. 고구려군은 물러가던 수의 군대가 살수를 건널 때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기서 살수는 오늘날 청천강으로 보아요.

수 양제는 이후에도 고구려를 다시 공격했지만, 고구려를 굴복시키려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전쟁의 실패는 이미 커지고 있던 국내의 부담과 혼란을 더 심하게 만들었어요.

Q16 대운하로 식량을 옮길 수 있었는데, 왜 전쟁에서는 군량이 부족했나요?

> **답** **운하는 수 안에서 물자를 옮기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적의 저항을 받는 먼 전쟁터까지 군량을 계속 보내는 일은 별개의 어려움이었어요.**

탁군을 거치는 육로 원정의 보급 예



용어 **보급** 군대에 식량·무기 등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일

앞의 지도에서 탁군을 지난 화살표는 운하가 아니라 군대가 움직인 방향이에요. 군대가 멀리 진격(앞으로 나아가며 공격함)하면 육로(땅 위의 길)로도 짐을 옮겨야 하고, 운반하는 사람도 먹을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군대에 식량을 대는 일을 보급이라고 해요. 수는 배에 식량을 싣고 바닷길로도 군대를 보냈지만, 땅으로 간 군대와 만나지 못했어요.

고구려군의 저항도 거셌어요. 수의 장수들 사이에서는 군량이 부족하니 돌아가자는 의견과 더 나아가 싸우자는 의견이 부딪쳤어요. 군사의 수가 많으면 먹여야 할 사람도 많아지므로, 큰 군대라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Q17 외국과의 전쟁에서 진 일이 왜 수나라 안의 혼란으로 이어졌나요?

> **답** 공사와 전쟁으로 사람·물자가 소모되고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전쟁의 실패로 통치에 대한 불만도 커졌기 때문이에요.

겹쳐진 부담



용어 **봉기** 많은 사람이 견디다 못해 들고일어나는 것

용어 **반란** 군사를 일으켜 나라에 맞서 싸우는 것

용어 **통치력**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힘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큰 공사와 전쟁 준비로 부담을 지던 백성에게 거듭된 동원과 피해가 더해졌어요. 각지에서 농민들이 견디다 못해 봉기하고, 지방 세력(지방에서 군사와 땅을 가진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중앙 정부(황제가 있는 조정)에 맞서면서 수는 나라를 통제하기 어려워졌어요. 이 단원에서는 농민들이 일어난 일을 봉기, 지방 세력이 군사를 일으킨 일을 반란이라고 불러요.

④ 수의 멸망과 남은 것

Q18 결국 수나라는 어떻게 끝났고, 누가 당나라를 세웠나요?

> **답** 각지에서 봉기와 반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618년 수 양제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같은 해 이연이 당나라를 세웠어요.

수에서 당으로



인물 **이연** 당나라를 세운 인물로, 당 고조라고 부름

농민 봉기와 지방 세력의 반란이 이어지면서 중앙 정부의 힘은 약해졌어요. 수 양제가 강도에서 살해된 사건도 이 혼란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연은 수에서 관직을 지냈던 인물로, 군사를 일으켜 세력을 넓힌 뒤 당을 세웠어요.

다만 618년에 당이라는 왕조가 생겼다고 모든 지역의 싸움이 그날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당은 건국 뒤에도 다른 세력을 물리치며 지배 범위를 넓혀 갔어요.

Q19 대운하가 좋은 사업이었다면, 백성이 왜 반발했나요?

> **답** 완성된 시설의 이점과, 그것을 만드는 동안 백성이 떠안은 부담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업의 두 측면

만드는 동안의 부담: 그때 동원된 사람들에게	완성된 뒤의 이점: 나라와 뒤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물자를 공사에 동원	곡식·물자 운반에 도움
농사와 생활에 쓸 시간·일손 감소	남북의 경제·문화 교류
전쟁 등 다른 부담과 겹침	뒤 왕조도 물길을 활용

운하가 먼 훗날에도 유용했다는 사실이, 당시 동원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없애 주지는 않아요. 반대로 수가 멸망했다고 운하가 쓸모없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시설의 역할과 공사를 추진한 방식, 당시 사람들의 부담을 함께 보아야 해요.

Q20 수가 망한 뒤에는 대운하도 버려졌나요?

> **답** **아니에요. 당을 비롯한 뒤 왕조들도 운하를 고치고 이용했으며, 시대에 따라 연결 구간과 중심지는 달라졌어요.**

사라진 왕조와 이어진 시설

618년에 끝난 것	뒤로 이어진 것
수 왕조의 지배	운하를 이용한 곡식·물자 운반
수 양제의 통치	물길의 보수·변경과 남북 교류

용어 **보수** 낡거나 손상된 곳을 고치는 일

오늘날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대운하의 노선 전체가 수 양제 때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니에요. 후대에 물길을 고치고 새 구간을 잇는 일이 거듭되었어요. 수의 통일과 제도, 교통로는 당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바탕이 되었어요.

확인 문제

01~16. 맞는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01 **수의 대운하를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황허강과 창장강의 물을 북쪽으로 돌려 수도에 모은 것이에요.

② 강과 운하를 손질하고 이어 배가 다닐 길을 넓힌 것이에요.

③ 바다를 건너 고구려로 곡식을 보낼 항로를 새로 연 것이에요.

④ 농사에 쓸 물을 모아 두려고 남북에 큰 연못을 만든 것이에요.

02 **황허강과 창장강이 있는데도 운하로 물길을 연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두 강의 모든 구간에서 배가 다닐 수 없도록 바꾸려 했어요.

② 두 강의 물을 바다 대신 북쪽으로만 흐르게 바꾸려 했어요.

③ 남북의 다른 물길 사이로 배가 오갈 수 있게 만들려 했어요.

④ 배 대신 수레로 곡식을 나를 수 있도록 물길을 막으려 했어요.

03 **교과서의 '수 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말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수 양제 때 운하 공사를 시작하여 대흥과 황허강을 처음으로 이었어요.

② 수 양제가 현장에서 땅을 파고 관리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일했어요.

③ 수 양제가 새 물길을 파서 이전의 강과 운하를 대신하도록 했어요.

④ 수 양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이 기존 물길을 잇고 손질했어요.

04 **대흥과 뤄양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대흥은 수 문제 때의 수도이고, 뤄양은 수 양제가 정비한 동쪽의 수도예요.

② 대흥은 수 양제가 정비한 항구이고, 뤄양은 수 문제 때의 남쪽 수도예요.

③ 대흥과 뤄양은 같은 도시이며, 수 양제가 즉위하며 이름을 바꾼 거예요.

④ 대흥과 뤄양은 다른 나라에 있어, 수가 두 도시를 직접 다스리지 못했어요.

05 **다음 지도에서 알 수 있는 연결 관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 대운하의 주요 연결 관계

7세기 초 · 지명은 수나라 무렵



운하망의 주요 연결 관계

강은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점선은 '이어졌다'는 뜻만 나타내요.
실제 운하가 지나간 자리는 아니에요.

작은 지명은 오늘날의 위치예요.

강·해안선은 현대 지형을 바탕으로 했어요.
당시의 물길·국경을 복원한 지도는 아니에요.

① 뤄양에서 북동쪽의 여항과 남동쪽의 탁군을 잇는 물길이 있었어요.

② 대흥과 여항 사이에만 물길이 있고, 뤄양은 운하망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③ 뤄양에서 북동쪽의 탁군과 남동쪽의 여항을 잇는 물길이 있었어요.

④ 탁군과 강도는 바다 건너에 있어, 바닷길만으로 곡식을 나를 수 있었어요.

06 **대운하가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운하 공사에 농민들을 동원하여 남쪽의 곡식 생산량을 늘려 주었어요.

② 남쪽의 곡식을 수도로 옮기려고 정치 중심지를 여항으로 바꾸었어요.

③ 황제가 물길로 순행하면서 각 지역의 세금과 부역 의무를 줄여 주었어요.

④ 여러 지역의 곡식과 물자를 정치 중심지나 군대로 옮기기 쉬워졌어요.

07 **다음 중 '조운'에 해당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① 나라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에 실어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② 나라가 맡긴 공사 대신 곡식을 내어 노동의 의무를 마치는 일이에요.

③ 황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방 관리의 일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④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남겨 두고 중앙에는 기록만 보내는 일이에요.

08 **그림에서 사람들이 줄로 곡식 배를 끄는 장면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운하가 완성되면 곡식 배를 조종하는 일도 부역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② 배를 이용해 운반을 쉽게 해도 배를 움직이는 노동은 계속 필요했어요.

③ 사람들이 배를 끌어야 했으므로 곡식 운반에는 육로가 더 유리했어요.

④ 줄로 배를 끄는 사람들은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 군역을 맡고 있었어요.

09 **수 양제의 순행과 대운하의 관계를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대운하는 황제의 순행이 주된 목적이어서 곡식 수송은 육로로 돌렸어요.

② 대운하를 타고 순행한 수 양제의 행차는 공사에 동원된 백성을 줄였어요.

③ 대운하의 곡식 배는 수 양제의 행차를 따르는 사람들 몫을 나르는 배였어요.

④ 대운하는 황제의 순행에도 쓰였지만 곡식과 물자를 운반하는 역할도 했어요.

10 **다음 사례를 세금·부역·군역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례	내용
(가)	나라에 옷감을 냈어요.
(나)	나라의 명령으로 운하 공사장에서 흙을 날랐어요.
(다)	군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어요.

① (가) 세금 · (나) 부역 · (다) 군역

② (가) 세금 · (나) 군역 · (다) 부역

③ (가) 부역 · (나) 세금 · (다) 군역

④ (가) 군역 · (나) 부역 · (다) 세금

11 **농사짓던 사람들이 큰 공사에 오래 동원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나요?**

① 공사장에서 받은 품삯으로 곡식을 사면 되므로 살림에는 지장이 없어요.

② 공사에 동원된 기간만큼 세금을 덜 내므로 집안의 부담을 메울 수 있어요.

③ 농사에 필요한 일손과 시간이 줄어 수확과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요.

④ 나라가 운하를 만들면 농사에 쓸 사람이 없어도 곡식 생산이 늘어나요.

12 **수와 고구려의 전쟁을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고구려는 수의 한 지방이었고, 전쟁은 지방 관리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② 수의 영향력 확대와 고구려의 독자적 세력 유지가 부딪친 전쟁이었어요.

③ 고구려가 수의 운하를 모두 소유해서, 수가 운하를 되찾으려 한 전쟁이었어요.

④ 수가 탁군까지 운하를 이은 뒤, 고구려를 멸망시켜 영토로 삼은 전쟁이었어요.

13 **살수 대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수의 군대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을 수도로 삼은 전투예요.

② 당을 세운 이연이 수 양제를 살수에서 직접 물리친 전투예요.

③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이끈 군대가 수의 군대를 크게 이긴 전투예요.

④ 수 양제가 죽임을 당하고 이연이 당을 세운 해에 벌어진 전투예요.

14 **대운하를 갖춘 수가 고구려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까닭을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운하가 있어도 먼 전쟁터까지 군량을 보내고 적의 저항을 이겨야 했어요.

② 운하가 탁군을 넘어 평양까지 이어졌지만 곡식 배가 너무 작아 부족했어요.

③ 군대가 커지면 운반할 사람이 늘어서 군량을 보내는 일도 더 쉬워졌어요.

④ 운하는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옮기는 길이어서 군량은 다른 길로 보냈어요.

15 **도식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의 멸망 과정



① 살수에서 진 612년에 수 양제가 죽임을 당하고 이연이 당나라를 세움

② 거듭된 동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황제와 관리들을 향한 불만이 커짐

③ 운하가 길어지면서 남쪽 곡식을 북쪽으로 보내는 일에 쓰임이 줄어듦

④ 순행에 쓰던 배를 공사에 내주면서 농민들이 자기 농사에 쓸 시간이 늘어남

16 **수의 멸망 이후 대운하를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당은 새 왕조를 세운 뒤 수의 운하를 닫고 곡식을 육로로 옮겼어요.

② 오늘날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노선은 수 양제 때 이미 완성되었어요.

③ 수 양제의 순행이 끝나면서 대운하는 농사에 물을 대는 시설이 되었어요.

④ 뒤 왕조도 물길을 활용했으며 필요한 구간을 고치거나 새롭게 이었어요.

17~20. 물음에 답하세요.

17 **대운하는 남쪽에서 난 곡식을 뤄양으로 옮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배'와 '물길'을 넣어 쓰세요.**

_____

_____

18 **갑은 "대운하는 좋은 사업이었어."라고 말하고, 을은 "대운하는 백성을 힘들게 한 사업이었어."라고 말합니다. 두 말이 모두 맞을 수 있는 까닭을 쓰세요.**

만드는 동안에는 _____

완성된 뒤에는 _____

19 **한 농가의 일손이 씨를 뿌릴 때 먼 공사장에 동원되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까닭을 쓰세요.**

동원되면 _____

→ 그래서 농사는 _____

→ 결국 _____

20 **다음 두 사건을 보고, “수는 살수 대첩에서 패한 해에 바로 멸망했다.”라는 말이 맞는지 판단하고 까닭을 쓰세요.**

612년	618년
살수 대첩	수 멸망·당 건국

정답·해설

확인 01 정답 ②

정답 풀이 기존 강과 운하를 손질하고 새 구간을 이어 큰 운하망을 만들었어요.

오답 풀이 ① 두 큰 강의 물을 북쪽으로 돌려 모은 일이 아니에요. ③ 중국 안의 여러 지역을 잇는 내륙의 물길이에요. ④ 물을 담아 두는 연못이 아니라 배가 다니는 길이에요.

다시 읽기 Q01·Q02·Q05

확인 02 정답 ③

정답 풀이 대체로 동서로 흐르는 큰 강들을 남북 방향의 물길로 이어, 서로 다른 지역 사이로 배가 오갈 수 있게 했어요.

오답 풀이 ① 배가 다닐 수 없게 막는 사업이 아니에요. ② 두 강의 물을 모두 북쪽으로 돌린 것이 아니에요. ④ 물길을 메워 육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다시 읽기 Q02

확인 03 정답 ④

정답 풀이 황제가 사업을 추진했지만 관리·기술자와 많은 백성의 일이 함께 필요했어요. 기존 물길도 활용했어요.

오답 풀이 ① 대흥과 황허강을 잇는 운하는 수 문제 때 팠어요. ② 황제가 직접 땅을 팠다는 뜻이 아니며 많은 백성이 공사에 동원되었어요. ③ 이전의 강과 운하를 버리고 대신할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물길을 활용하고 새 구간을 이었어요.

다시 읽기 Q03·Q04

확인 04 정답 ①

정답 풀이 대흥은 수 문제 때의 수도였고, 수 양제는 동쪽의 뤄양을 크게 정비하여 동도로 삼았어요.

오답 풀이 ② 대흥은 항구가 아니며, 뤄양에 대한 설명도 틀렸어요. ③ 서로 다른 도시예요. ④ 두 도시 모두 수나라가 다스리던 곳이에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5 정답 ③

정답 풀이 지도에서 탁군은 뤄양의 북동쪽, 여항은 남동쪽에 있어요. 물길로 이어진 관계가 점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오답 풀이 ① 탁군과 여항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② 대흥도 다른 물길과 이어졌고, 뤄양은 운하망의 중심이었어요. 지도에는 대흥–뤄양과 뤄양–탁군·여항의 연결 관계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요. ④ 탁군과 강도는 바다 건너의 섬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며 내륙 물길로 이어졌어요.

다시 읽기 **Q05와 지도**

확인 06 정답 ④

정답 풀이 물자가 필요한 정치 중심지와 군대에 여러 지역의 곡식 등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오답 풀이 ① 운하는 곡식을 운반하는 길이에요. 농민이 공사에 동원되면 농사 일손이 오히려 줄 수 있어요. ② 수 양제가 크게 정비한 정치 중심지는 여항이 아니라 뤄양이에요. ③ 호화로운 순행은 물자와 노동의 부담을 늘렸어요.

다시 읽기 **Q06·Q07·Q10·Q13**

확인 07 정답 ①

정답 풀이 조운은 세금으로 걷은 곡식 등을 배로 운반하는 일이에요.

오답 풀이 ② 노동 의무를 다른 것으로 대신 내는 일은 조운의 뜻이 아니에요. ③ 황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은 순행이에요. ④ 기록만 보내는 일이 아니라 실제 곡식 등을 옮기는 일이에요.

다시 읽기 **Q08**

확인 08 정답 ②

정답 풀이 큰 짐을 배에 실으면 운반에 도움이 되지만, 배를 움직이거나 물길을 관리할 사람은 여전히 필요해요.

오답 풀이 ① 운하가 완성되어도 배를 조종하고 물자를 나르는 일이 남아요. ③ 사람의 일이 필요하다고 육로가 더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물길 조건이 맞으면 배가 많은 곡식을 옮기는 데 유리해요. ④ 그림은 곡식 운반 노동이에요. 군사로 전쟁에 나가는 군역과 구별해야 해요.

다시 읽기 **Q08·Q09·Q12**

확인 09 정답 ④

정답 풀이 황제의 순행과 국가의 물자 수송 등 여러 목적으로 이용했어요.

오답 풀이 ① 순행을 위해 곡식 수송을 육로로 돌린 것이 아니에요. 운하로 곡식과 군사 물자를 날랐어요. ② 호화로운 행차는 노동과 물자의 부담을 늘렸어요. ③ 행차에 필요한 물자도 옮겼지만, 운하의 곡식 배를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몫으로 한정할 수는 없어요.

다시 읽기 Q08·Q10

확인 10 정답 ①

정답 풀이 (가)는 재물을 내는 세금, (나)는 나라가 맡긴 노동인 부역, (다)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역이에요.

오답 풀이 ② 공사에서 흙을 나르는 부역과 군사로 복무하는 군역을 바꾸었어요. ③ 옷감을 내는 세금과 흙을 나르는 부역을 바꾸었어요. ④ 재물을 내는 세금과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역을 바꾸었어요.

다시 읽기 Q12

확인 11 정답 ③

정답 풀이 일손이 농사철에 오래 동원되면 제때 농사를 짓기 어려워 수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답 풀이 ① 부역은 원하는 일자리를 골라 품삯을 받는 일과 달라요. 품삯으로 농사의 손해를 메울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요. ② 세금과 부역은 구별되는 부담이며 한 집안에 겹칠 수 있어요. 동원 기간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어요. ④ 운하가 있어도 농사를 지을 사람과 시간은 필요해요.

다시 읽기 Q12·Q13

확인 12 정답 ②

정답 풀이 수는 주변에 영향력을 넓히려 했고, 고구려는 독자적인 세력과 대외 관계를 유지하려 했어요.

오답 풀이 ① 고구려는 수의 한 지방이 아니라 별개의 나라였어요. ③ 고구려가 수의 운하를 소유해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에요. ④ 수는 고구려를 멸망시켜 자기 영토로 삼지 못했어요. 운하가 있다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4

확인 13 정답 ③

정답 풀이 살수 대첩은 612년에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오답 풀이 ① 승패가 뒤바뀌었고 수는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② 이연의 당 건국과 살수 대첩은 다른 사건이에요. ④ 살수 대첩은 612년, 수 양제가 죽고 당이 세워진 것은 618년이에요.

다시 읽기 Q15

확인 14 정답 ①

정답 풀이 운하는 수송의 일부를 돕는 시설이에요. 군대가 멀리 진격한 뒤에도 보급을 이어 가고 고구려군의 저항에 대응해야 했어요.

오답 풀이 ② 운하가 탁군을 넘어 평양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③ 군대가 커지면 먹여야 할 사람과 필요한 식량도 늘어나요. ④ 세금으로 걷은 곡식도 군량으로 쓸 수 있고, 운하로 군사 물자를 운반하기도 했어요.

다시 읽기 Q08·Q16

확인 15 정답 ②

정답 풀이 공사와 전쟁의 부담이 겹쳐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불만이 커졌어요. 그 속에서 봉기와 반란이 퍼지며 통치력이 약해졌어요.

오답 풀이 ① 수 양제의 죽음과 당 건국은 612년이 아니라 618년이에요. ③ 남북의 물길을 이으면 곡식을 운반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운하의 쓰임이 줄어서 수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④ 공사와 호화로운 행차는 농사에 쓸 시간과 일손을 빼앗아 부담을 늘렸어요.

다시 읽기 Q13·Q15·Q17·Q18

확인 16 정답 ④

정답 풀이 왕조가 바뀌어도 물길은 계속 이용할 수 있었고, 후대에 보수하거나 새 구간을 연결하기도 했어요.

오답 풀이 ① 당도 수의 운하를 고치고 활용했어요. ② 오늘날의 노선은 후대의 보수와 변경을 거친 것이에요. ③ 수 양제의 순행이 끝난 뒤에도 곡식·물자를 운반하는 물길로 쓰였어요.

다시 읽기 Q20

확인 17 예시 답

> **"남쪽과 뤄양 주변의 물길이 이어져, 곡식을 배에 실어 옮기기 쉬워졌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물길이 이어져 남쪽의 곡식을 배로 정치 중심지에 옮기기 쉬워졌다는 관계가 드러나면 돼요. '이어진 물길로 곡식을 배에 실어 뤄양으로 나를 수 있어요.'라고 써도 돼요. 황제가 남쪽의 곡식을 직접 생산했다거나, 물길만 있으면 운반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답은 맞지 않아요.

다시 읽기 Q07·Q08

확인 18 예시 답

> **"만드는 동안에는 오래 동원된 사람들이 농사와 생활에 쓸 시간과 일손이 부족해질 수 있었어요. 완성된 뒤에는 곡식과 물자를 옮기기 쉬워졌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① 공사 동원이 당시 사람들에게 준 부담, ② 시설이 물자 운반에 주는 이점을 모두 설명하면 돼요. 이점이 있으므로 당시의 고통도 없었다고 하거나, 부담이 있었으므로 시설도 쓸모없었다고 하면 두 측면을 구별하지 못한 답이에요.

다시 읽기 Q13·Q19

확인 19 예시 답

> **"동원되면 집에서 일할 사람과 시간이 줄어요. → 그래서 농사는 제때 씨를 뿌리기 어려워져요. → 결국 수확이 줄고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동원으로 일손·시간이 부족해짐 → 농사를 제때 짓기 어려움 → 수확·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관계를 설명하면 돼요. '공사가 힘들어서요.'만으로는 농사와 가족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읽기 Q12·Q13

확인 20 예시 답

> **"맞지 않아요. 살수 대첩에서 패한 것은 612년이고 수가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618년이므로, 같은 해의 사건이 아니에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틀린 말이라고 판단하고 두 사건의 시기가 다름을 설명하면 돼요. '패배 뒤에도 수가 더 이어지다가 618년에 멸망했어요.'라고 써도 돼요. 6년이라는 간격을 꼭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전쟁의 실패가 수의 멸망과 아무 관련도 없었다고 하면 맞지 않아요.

다시 읽기 Q15·Q17·Q18